

세계 컬러 TV시장 매년 4%씩 성장

세계 컬러TV시장은 금후 7년간 브라운관(CRT) 제품 주도로 안정 성장을 지속해 오는 2004년 그 규모가 1억5천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스탠퍼드 리소시스가 내놓은 텔레비전 시스템스라는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컬러TV 시장은 대수기준으로 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연평균 4%씩 성장해 그 규모가 98년 1억2천5백만대에서 2004년에는 1억5천1백만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액으로는 98년부터 7년간 연 평균 5% 정도씩 증가해 98년 5백90억달러에서 2004년에는 8백억달러 규모로 팽창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화면종류에 따른 동향을 보면, 이 기간 중에도 CRT TV가 최대시장을 형성하며 성장을 주도하고, 프로젝션(투시) TV가 그 뒤를, 차세대 주력으로 기대되는 플라즈마 패널 디스플레이(PDP) TV는 세 번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PDP TV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04년 시장규모가 대수로 110만대, 금액으로는 3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CRT TV인 와이드형의 경우 일본에서는 98년도 CRT

제품 전체 판매대수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전체의 6.4%에 불과하고, 북미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4세대 파워 PC 'G4' 프로세서 개발 추진

미국 모토롤라가 4세대 파워 PC인 G4프로세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모토롤라는 기존 G3 프로세서의 후속기종이 될 이 칩이 400MHz의 처리속도를 갖게 될 것이라며 현재 샘플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G4는 100MHz의 시스템버스 기술과 2MB의 레벨2 캐시를 채택할 예정이다.

현재 출시중인 G3의 경우 최상의 버전인 「파워PC 750」의 처리속도가 366MHz이고 시스템버스 속도는 66MHz에 머물고 있다.

G4는 또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처리능력에서 이전 기종과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칩을 샘플테스트한 컴퓨터 전문가는 동일 클럭 주파수에서 G4는 G3보다 10%정도 속도가 앞섰지만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등 멀티미디어 정보처리능력 향상 정도는 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G4의 멀티미디어 정보처리능력 향상은 인텔의 펜티엄 MMX와 유사한 멀티미디어 처리 명령어인 「알티벡(AltiVec)」 기술의 적용으로 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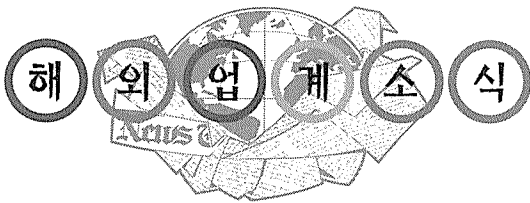
DVD플레이어 신제품 '붓물'

마쓰시타전기산업·도시바·소니·일본빅터·파이어니어 등 일본 주요가전업체들이 디지털 다기능디스크(DVD) 플레이어 신제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마쓰시타전기는 이미 판매중인 휴대타입 2기종의 생산규모를 월 1만원대로 확대하는 한편 최적의 영화소프트웨어 재생에 중점을 둔 「DVD-A770」과 영상가요반주(가라오케) 기능을 겸비한 「DVD-K570」을 11월 초 시장투입할 계획이다.

도시바는 다음달 초부터 중순에 걸쳐 고급기종 「SD-V620」과 가라오케대응기인 「SD-K320N」, 콤팩트형인 「SD-P420」 등 3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V620은 「슈퍼 서브 에어리어스 필터」라는 새 회로를 탑재해 수평해상도가 업계 최고다.

지난달 휴대형 「PBD-V30」을 선보인 소니는 다음달 중순 가정용으로 고급 기종인 「DVP-S7700」을 고급 디지털 AV앰프



와 함께 시장투입할 계획이다.

S7700은 DVD비디오 규격 중 최상위 음성사양인 「96MHz/24」비트리니어PCM음성에 대응하는 음성 D/A컨버터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빅터는 업계 최고의 화질과 음질을 실현한 「XV-D701」을 12월 초에, 가라오케 등 다양한 기능을 장착한 「XV-K501」을 11월초에 각각 출시할 계획이다.

일본 DVD시장 점유율 1위인 파이어나이어는 「다이나믹시어터」 브랜드로 총 4개 기종을 출시할 방침인데, 10월초 「DV-S5」를 시장투입한 데 이어 10월말에는 「DVL-919」, 「DV-515」, 「D과-900」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64MD램 양산

대만 주요 반도체업체인 화방전자가 내년 초부터 64MD램을 월 4백만-5백만개 규모로 양산한다. 화방전자는 현재 도시바와 제휴해 0.2미크론 미세가공기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초 양산하는 64MD램 생산량 가운데 50% 이상을 도시바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자사 상표로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바는 내년 봄까지 일본 국내의 옷카이치공장과 IBM과의 합작공장 등 2개 공장

을 합친 64MD램 생산규모를 7백만개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화방전자에 위탁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美ASIC시장 공략강화

일본 도시바가 미국 주문형반체(ASIC)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도시바가 네트워크 관련 정보통신기와 디지털 가전기기용으로 ASIC의 제품군을 다양화해 지난해 4백억엔 정도였던 연 매출을 오는 2001년까지 2배인 8백억엔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도시바는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LSI 디자인센터를 통해 고성능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기기용 ASIC 사업을 본격화한다. 특히 이더넷과 교환기, 그리고 차세대 통신망인 비대칭디지털가입 자회선(ADSL)에 사용하는 고속모뎀용을 중점 사업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바는 현지 두 거점의 약 4백명 규모 영업인력을 활용, 스리콤파크 시스코시스템스등 대형 고객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생산은 일본 최첨단거점인 오이타공장 에서 담당한다.

도시바의 지난해 미국시장 반

도체 총매출은 약 2천억엔으로 이 가운데 ASIC은 약 20%인 4백억엔정도였다. 도시바는 앞으로 ASIC에서만 적어도 연간 20% 이상씩 매출을 확대해 2001년에는 미국시장 ASIC 매출을 8백억엔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 ASIC시장은 첨단 정보통신망의 보급 등으로 앞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파운드리 생산을 담당하는 대만 업체들은 물론 일본, 미국 업체들이 잇따라 ASIC 사업 강화를 표명하고 나서 당분간 치열한 경쟁양상이 어어질 전망이다.

저가형 노트북에 '무게중심'

미국 IBM이 노트북 PC 판매 확대를 위해 일반 소비자 및 홈오피스(SOHO)를 겨냥한 저가형 제품을 크게 보강한다.

IBM은 고품질의 TFT 액티브 매트릭스 화면을 채용하고 신형 노트북 PC 「싱크패드 I」 시리즈 3개 모델을 발표했다.

도시바의 노트북 「500」시리즈나 컴팩의 「아마다」 제품과 본격 경쟁하게 될 「I」시리즈는 가정용 시장에서 IBM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제품으로 그동안 기업 이용자들을 위주로 했던 「싱크패드」 사용환경이 개

인 이용자로 확대되는 의미를 갖는다.

이 제품은 「싱크패드600」 시리즈와 비슷한 설계방식을 채택한 한편 스피커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추가했고 56K 모뎀을 내장, 신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중 하위기종인 「1410」은 266MHz 펜티엄MMX에 12.1인치 LCD, 32MB 메모리, 3.2GBHDD, 20배속 CD롬 드라이브를 포함해 1499달러이며 최상위 기종인 「1720」 모델은 266MHz 펜티엄Ⅱ, 13.3인치 LCD, 64MB 메모리, 4.3휴 HDD, 24배속 CD롬 드라이브를 갖추고 있다.

특히 1720의 경우 업무용 하이엔드제품에만 주로 채용됐던 모듈방식의 배이를 채용, 언제든지 추가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다.

디지털카메라 프린터시장 진출

일본 세이코 엡슨이 디지털카메라 전용 프린터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세이코 엡슨은 최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PC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인쇄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용 프린터 「프린터PT100」을 12월초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 프린터로 인쇄한 디지털사진은 지금까지 화질이 은염사진 수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PC를 이용해야 하는 등 프린트 과정이 복잡해 보급이 늦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1백만화소 이상 메가픽셀급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과 프린트 기술 향상으로 화질의 차이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디지털카메라 전용 프린터의 등장으로 프린트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오는 2000년 초에는 디지털 사진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세이코 엡슨의 프린터PT100은 잉크젯 방식을 채용한 제품으로 기존 은염사진과 비슷한 수준의 고화질 인쇄가 가능하다. 또 디지털카메라에서 메모리카드를 꺼내 프린터에 삽입하고 인쇄버튼을 누르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인쇄가 된다.

특히 세이코 엡슨은 프린터PT100을 사용할 경우 엡서크기의 사진 1장당 소요비용은 용지와 잉크를 합쳐 총 31엔으로 은염사진 인쇄, 현상비 55엔보다 크게 낮아 비용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카메라용 프린터는 현재 일부 가전업체들이 출시해 놓은 상태이나 이번 일본 최대 프린터업체인 세이코 엡슨의 참여 발표로 내년부터 이 시장 형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인터넷폰시장 규모 2003년께 13억 달러

유럽의 인터넷폰 시장규모가 오는 2003년경 13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영국의 통신 컨설팅업체 세마의 보고서의 인용에 따르면 유럽 인터넷폰 시장규모는 앞으로 5년 후 13억달러에 달해 유럽내 국제전화회선의 20%를 차지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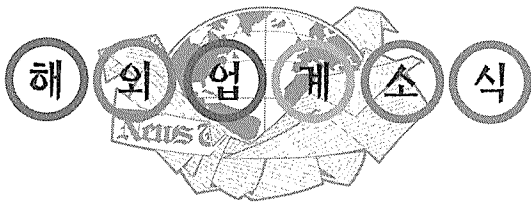
특히 유럽에서의 인터넷폰은 고가의 유럽지역 전화요금을 70%이상 인하케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마는 브리티시텔레콤, 프랑스텔레콤 등 주요 전화사업자들이 인터넷폰 요금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 인터넷폰의 상용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소형 256M 플래시 메모리 제품화

일본 도시바가 세계 초소형 256M 플래시메모리를 제품화했다.

도시바는 최근 0.25μm 미세가공기술과 STI(Shallow Trench Isolation)라는 소자분리기술을 채용함으로써 칩 크기를 세계 최소인 130mm까지 축소한 256M급 NAND형 플래시메모리



를 개발, 샘플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샘플가격을 개당 9천엔으로 책정했는데 본격적인 양산시기는 내년 봄으로 잡고 있다.

256M급 NAND형 플래시메모리는 디지털카메라의 영상데이터 기록매체와 반도체 디스크용 등으로 최근 들어 수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제품이다.

광 기록매체 고성능화 기술개발

일본 후지쯔연구소가 디지털 다기능디스크(DVD), 광자기디스크(MO) 등 반도체레이저 광을 이용하는 각종 기록매체의 용량을 20%, 그리고 데이터 전송속도를 60% 고속화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후지쯔연구소의 신기술은 새로 개발한 특수형상의 렌즈를 디스크의 읽고 써넣기 장치에 부착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광자기 디스크의 고성능화를 실현하는게 특징이며, 광통신이나 레이저가공 등의 성능향상에도 폭넓게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레이저가 내는 빛은 방사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중심부일수록 빛이 집중돼 광량(강도)이 강하고 반대로 주변부일수록 빛이 흩어져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후지쯔연구소가 새로 개발한 렌즈 「플랫 인텐시티 렌즈」는 반도체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을 굴절시켜 균일하고 평행한 빛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빛이 균일하고 평행하면 대물렌즈에서 가는 광선으로 집약하기 쉽고 그 결과로 빛이 가늘어지는 만큼 디스크의 데이터 입력을 세밀하게 할 수 있다. 새 렌즈를 이용한 결과, 기록밀도는 종래보다 1.2배 높아졌다.

또 지금까지는 가능한 균일한 광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부의 빛은 버리게 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빛은 60% 정도였는데, 새 렌즈에서는 빛을 100% 사용하기 때문에 광량이 그만큼 강해진다. 광량이 강할수록 데이터 전송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1.6배 고속화가 가능하다.

새 렌즈는 전체적으로 복잡한 곡면형상을 하고 있는데 중심부는 빛을 확산하는 오목(凹)렌즈, 주변부는 빛을 모으는 볼록(凸)렌즈 모양을 하고 있다. 0.06 μ m의 정확도로 가공하며 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해 만들 수 있다.

한편 후지쯔연구소의 모회사이면서 MO 최대업체인 후지쯔는 향후 MO를 비롯한 자사 제품에

새 렌즈를 탑재할 방침이다.

유기 EL 디스플레이 개발

일본 파이어나어는 26만색의 풀컬러를 실현한 유기 전계발광소자(EL)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

파이어나어가 이번에 개발한 유기 EL 디스플레이는 5.2인치 화면에 가로 320×세로 240의 화소수를 실현한 것으로 유기 화합물을 발광체로 사용해 영상을 비추게 함으로써 액정표시장치(LCD)에 비해 동영상 구현성이 뛰어난 뿐 아니라 박형화 및 에너지절약 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파이어나어는 두 전극 사이에 유기화합물 막을 끼워 발광할 때 화소를 구성하는 셀을 각각 적, 청, 록의 색으로 점등시키는 기술을 이용해 풀컬러화를 실현했다.

파이어나어는 지금까지 흑백 유기 EL 디스플레이를 생산해 카오디오용 디스플레이에 적용해 왔으나 이번 풀컬러 유기 EL 디스플레이의 개발을 계기로 앞으로 카네비게이션 시스템 및 휴대정보단말기(PDA), 소형 노트북 PC 등으로 용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고해상도 디지털 평판 모니터 발표

미국 실리콘그래픽스(SGI)가 업계 최초의 고해상도 디지털 평판 모니터를 발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실리콘그래픽스 1600SW」라고 하는 이 평판 모니터는 17.3인치 대화면에 1600X1024픽셀의 「슈퍼와이드」 스크린 포맷을 채용, 화면비율 16대 10의 HDTV와 같은 고해상도를 실현했으며 색상, 명암, 대조, 픽셀 성능도 뛰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SGI는 이 제품이 기존 평판모니터와는 달리 업계 처음으로 완전 디지털방식의 2세대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인 「오픈LDI」를 채용, 최고의 해상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GI는 자사 「O2」 워크스테이션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윈도 NT 워크스테이션과 PC, 매킨토시에 「1600SW」의 탑재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인데 우선 1600SW를 장착한 O2 워크스테이션은 11월중 출하된다.

특히 SGI는 PC와 매킨토시에 대한 「1600SW」의 채용확대를 위해 넘버 나인 비주얼 테크놀로지사와 제휴, 자사 모니터와 넘버 나인의 32MB 「IV-FP」 그래픽 카드를 패키지로 묶어 11월부터 윈도PC용으로, 내년초부터는 매킨토시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장전문가들은 현재 평판디스플레이 가격이 속락하고 있기 때문에 SGI의 1600SW도 조만간 2천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SGI의 이번 1600SW 발표는 시장에서 자사 비주얼 컴퓨팅기술의 주도권을 넓혀 가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자 PC나 매킨토시 등 일반 사용자시장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모토롤러, 'VoxML' 개발

미국 모토롤러가 음성명령어를 사용해 인터넷의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음성인식기술인 「VoxML(Voice Markup Language)」을 개발했다고 미 「C넷」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모토롤러가 개발한 VoxML은 웹사이트에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첨가, HTML기반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어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유무선 전화기 및 음성 인식 장비를 활용해 다양한 인터넷 정보를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다.

또한 VoxML은 여러 인터넷 기술 및 표준을 지원, 기존 인터넷 애플리케이션과 호환해 사용할 수 있어 웹브라우저 등에 이 기술을 탑재해 음성지원이 가능

하다.

모토롤러는 개발자들이 VoxML을 활용해 손쉬운 방법으로 인터넷 음성인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으며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연계, 음성을 지원하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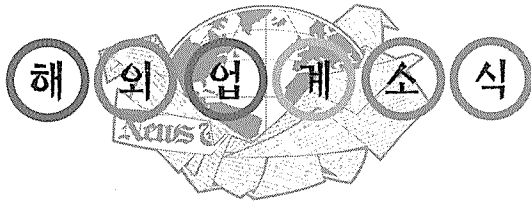
모토롤러는 특히 콘텐츠업체 및 IP업체들이 이 기술을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 앞으로 VoxML을 활용한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화질 디지털 캠코더 출시

일본빅터(JVC)는 프로그레시브 스캔 고해상도소자(CCD)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슈퍼 하이밴드 카메라회로 등을 탑재해 업계 최고 수준의 고화질을 실현한 디지털캠코더를 오는 11월부터 시판한다.

일본빅터의 「GR-DVL7」은 38만화소급의 프로그레시브 스캔 CCD 및 고감도 색상조정 필터를 탑재해 동영상과 정지영상 모두 재생할 때 5백선의 수평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일본빅터는 특히 가정용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1초당 120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하이스피드 촬영기능」과 느린화면을 고해상도로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레



시브 슬로 기능」을 추가했다.

기록밀도 30~50% 향상 자기헤드 박막재료 개발

일본빅터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나 VCR의 기록용 자기헤드의 기록밀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박막재료를 개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빅터는 질화철을 주성분으로 한 지성체를 사용함으로써 HDD의 경우 기록밀도를 최대 30%, 자기테이프는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빅터가 이번에 기록용 자기헤드의 박막재료를 개발한 「하이테스라」는 섭씨 150-600도의 열처리를 요하는 자기헤드의 생산공정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제조온도가 낮은 HDD용에서부터 고열처리가 필요한 VCR용까지 폭넓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빅터는 이번에 개발한 박막재료를 활용해 앞으로 HDD용 헤드시장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DD용 거대자기저항 헤드 사업강화

일본 알프스전기가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용 거대자기

저항(GMR)헤드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알프스 전기는 1제곱인치당 면기록밀도가 업계 최고수준인 6Gb 및 8Gb에 달하는 제품을 샘플출하하는 한편 GMR헤드를 포함한 MR헤드의 증산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MR헤드 업계의 선두업체인 TDK를 추격할 방침이다.

알프스는 당초 각종 MR헤드의 양산규모를 금년 말까지 월 8백만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년 봄 월 1천만개, 2000년 봄 월 1천5백만개 규모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향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양산규모를 금년 말 월9백만 - 1천만개로 늘리고 내년 봄에 월 1천2백만 - 1천3백만개로 상향조정했다.

알프스는 이와 함께 MR헤드에서 차지하는 GMR헤드의 생산비율도 당초에는 내년 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오는 2000년에는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이를 각각 10%와 100%로 상향조정했다.

녹화기능 DVD플레이어 개발

일본 파이어나어가 AV용으로는 처음으로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플레이어를 개발했다.

PC용으로는 사용자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DVD램이 나와 있지만 AV용에는 현재 재생전용기밖에 없다.

파이어나어의 녹화기능 DVD 플레이어는 기록매체에 정보를 1천 회까지 고쳐쓸 수 있는 「DVD-RW」를 이용해 개발한 것으로 기록용량이 4.7GB로 현행 재생전용 DVD와 같은 기록시간(2시간 15분)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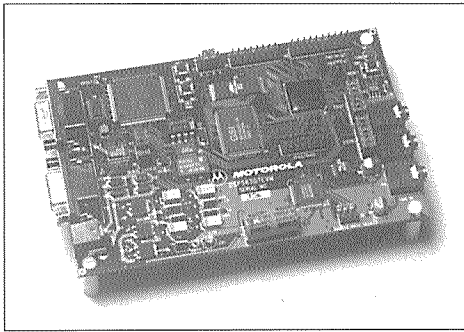
DVD-RW는 파이어나어, 일본빅터, TDK 등 5개사가 소프트웨어 제작시 사용하는 제작 및 검증용 기록매체로 제창하는 규격으로 규격채정기관인 DVD포럼에서 연내 통일규격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새 DVD플레이어는 또 DVD램과 달리 재생용 DVD와 규격상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기록한 후 DVD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있다.

파이어나어는 금후 디지털정보의 저작권보호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새 플레이어의 상품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DVD의 VCR 대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용량 메모리와 온-칩 프로세서를 갖춘 신형 DSP, 개발

모토로라는 대형 SRAM과 온-칩 코-프로세서를 실장하는 신형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 칩을



선을 지원하며 24비트 온-칩 스테틱 RAM을 통해 64K 메모리를 지원하며, 6개 채널의 DMA, 3중 타이머, 직렬 통신, I/O 등을 한 개의 15mm정사각형 PBGA 패키지내에 구현하고 있다.

개발,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 스루풋 성능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칩 디자인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온-칩 메모리 상에서 실행 시킴으로써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코-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이들을 병렬 실행하여 170MIPS의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탁월한 성능의 칩은 소형 15X15PGBA 패키지에 실장되며, 다중 채널 애플리케이션용으로 고밀도 병렬 실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고성능 소형 패키지를 이용하여 칩 수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력 소모량 감소 및 전체 시스템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고성능 밀도)

이 DSP56307솔루션은 별도의 필터링 코-프로세서를 갖춘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며 24비트

일본 파이어나어와 네덜란드 필립스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의 차세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제휴키로 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계기로 상호 기술교류를 추진, 그동안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소비 전력 문제와 가격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양사가 추진하는 공동개발 계획은 브라운관의 2배에 달하는 소비 전력을 낮추기 위해 발광효율을 높이고 PDP를 구동하는 IC회로를 개선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양사는 또 40인치 이상 대화면이면서 고화질을 실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가격도 1인치당 1만엔 수준으로 낮춰 일반 가정에 대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필립스는 현재 가정부문이 일본 후지쯔로부터 패널을 공급받아 PDP TV를 판매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부문에서는 소니, 샤프 등과 손잡고 액정표시장치(LCD)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디스플레이인 「플라즈마 어드레스 액정(PALC)」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DSP56307칩은 다양한 종류의 DSP 리소스 보드의 기초칩으로 사용되는데, 이 보드는 다수의 DSP를 사용하여 유무선 및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장비에서 다중 채널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6307 보드는 셀룰러 기지국 송수신장치에 채널 모뎀 제어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트랜스코더 기능을 수행하여 셀룰러 이동 교환기 및 기지국 제어장치에서 음성 코드화 및 반향 제거 기능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칩은 또한 유선 교환 장비의 음성 부호화 및 반향 제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PDP기술개발 제휴